

세계문화유산 경주에 산업공단 들어선다

‘명계2산업단지’ 2010년 완공·총사업비 115억 투입... 사찰·지역주민 등 반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경주 남산에 대규모 산업공단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발단은 최근 국보로 지정된 칠불암 마애석불과 보물 12점, 지정문화재 41점 등 신라불교 문화재 631점이 산재한 남산을 더욱 보호해야 할 경주시가 남산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부터다.

진양개발(대표이사 안재호)이 추진하는 ‘명계2산업단지’ 조성사업

은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15억원이 투입된다. 부지만 149,255㎡에 이르는 산업단지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영상, 음향 등 철강·기계 산업이 유치된다. 업체 측은 이미 98%까지 토지 매입을 마친 상태다.

해당 업체와 지역개발과 산업입지 담당부서는 “현재 건설 중인 국도 7호선과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가깝다. 명계리가 남산 국립공원을 비껴가기 때문에 법적 하자

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비롯해 용은사, 봉명암, 불일암 등 지역 사찰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가 대기환경기준 100μg/m³을 초과하는 135μg/m³로 예상됐고, 산업폐수도 다양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계단식 공장시설로 인해 사업장 진동 및 토사침전 등 다양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인근 마석산 마애장여래입상을 비롯해 북명사 등 신라유적이 산재한 것도 중요한 반대

이유다.

지역 주민 최명호(56)씨는 “예전부터 ‘탑골’로 불린 이 지역은 일제시대까지 신라삼층석탑이 있었고, 고분군도 많았다. 국도7호선 공사 때도 신라사찰인 북명사 터에서 기와장 등이 발굴됐는데도 대충 조사한 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불국사, 은해사 등 5개 교구 본사 등은 사업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지역 불교계는 150여 주민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기한 상태다. 경주시가 진행한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도 이와 같은 반대 속에 무산됐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공단 특성상 주민들의 거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봉명암 주지 법일 스님은 “산120번지 뿐만 아니라 산 118, 119번지도 함께 매입한 것은 향후 더욱 공단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며 “자체로 찬란한 신라문화의 보고인 남산 인근에 산업공단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주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buddhapia.com



대전불교사암련 대전시와 간담회

대전불교사암련협회(회장 도안)는 6월 29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도움을 준 박성호 대전시장을 만나 감사의 표하고 지역불교계와 구정정책 등에 대한 답문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불교사암련협회 회장 도안 스님을 비롯해 원로위원 등 임원 15명과 박성호 대전시장, 종무담당자 3명이 참석했다.

도안 스님은 “올해 대전에 전국체전과 국제우주대회 등 큰 행사가 많아 외국인 등 손님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템플스테이 등을 개발하고, 불자들에게 공공질서 확립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전불교문화예술회관 및 독거어르신 위한 무료장례시설 건립, 불우이웃돕기 협조, 문화행사 시 불교예술공연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전시는 불교문화예술회관 사전조사·무료장례식장 현장답사 실시 검토를 약속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하나님께서 6·25 주관?

국군 안보교육서 기독교 찬양 영상 상영

“하나님께서 신중히 미국과 UN을 들어 6·25 전쟁을 주관하셨다.”

국군 안보교육에 기독교 찬양 영상이 상영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육군 71사단은 6월 23-25일 실시한 동원훈련 중 안보교육시간에 문제의 동영상을 방영했다. 이 동영상은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6.25 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가 약 20분 분량으로 제작한 ‘6.25전쟁의 진실’이란 동영상(video.mgoon.com/1558184).

문제가 된 동영상은 “그가 필립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라는 성경구절을 시작으로 찬양 일색의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특히 6·25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쟁 발발 시 하나님

께서 신중히 미국을 들어주셨으며 유엔을 통해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고 믿는다. 지난 전쟁을 회상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주관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파문이 일자 해당부대 연대장은 6월 30일 오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군종교구를 방문해 “종교관련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중령위는 국방부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안보교육교재에 대한 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어 군종교구와 함께 군내 종교관향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군병사 종교관향 교육 등에 나설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대구서 단기 출가학교 열려

한국불교대학서 보름간 개최해



1일 한국불교대학 제5기 단기출가학교 입학식에서 열린 수계식에서 연비하는 우학 스님.

출가 수행자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제 5기 단기 출가학교가 대구 한국불교대학에서 문을 열었다.

7월 1일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직장인과 군인, 학생 등 16명의 일반인들이 사발과 수계식을 갖고 예비 승려로서 보름간의 단기출가에 들어갔다.

입학식에서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보름에 불과한 단기출

가 일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의미를 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용기 있는 선택이 결실을 맺도록 최대한 뒷바라지하겠다”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단기출가 기간 한국불교대학 부설 경주 감포도량에 머물며 기초 불교공부, 참선, 목탁 열불습의 등 출가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일봉 스님 열반 13주기 추모대제

법왕청 평화재단서 6월 25일 봉행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이 6월 25일 일봉 스님 열반 13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이사장 담화)은 6월 25일 총북청원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제22대 화정사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이며 국제연합 UN, NGO 전권대사로 중생을 제도하다 원적한 일봉 서경보 스님의 열반 13주기 추모대제와 만등불사 및 세계평화와 남북통일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100여 종단의 200여 스님 등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추모법회에서 담화 이사장은 “19세의 어린 나이에 불문에 귀의한 뒤 전국의 제방선원을 두루 거치며 화두일념으로 참선정진과 중생교화에 매진해 온 존자님의 구도행을 본받아 남북

통일과 세계평화에 앞장서자”고 인사를 했다.

이어 법회에서는 고승연합회 추천으로 제2세 세계불교법왕에 부산대각사 경우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취임식은 10월 31일 세계 6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30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법왕청 장학회 제8회 장학금 전달식과, 노인공경 효사랑 가수초청 공연,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김성우 기자

사회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 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증흥발원

“엄장도멸 범륜대 부처님 자비로 복장 행사 개최 ! ”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범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범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범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춘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범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범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